

GLOBAL TREND

세계지방자치동향

미국

- ▶ 뉴욕 청소년 정신건강 안전망 B-HEARD 프로그램

미국

- ▶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청년 정신건강 지원사업

일본

- ▶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의 변천과 시사점

프랑스

- ▶ 청년 자립도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: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청년 지원 사례

한국

- ▶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 청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조례 제정 현황

한국

- ▶ 고립·은둔 청년지원정책: 서울형 고립 은둔 청년지원 5대 혁신 사례



고립·은둔 청년지원정책: 서울형 고립 은둔 청년지원 5대 혁신 사례

청년의 고립·은둔 이슈의 시급성

-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심화
 - 청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독립적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인데, 고립과 은둔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의 존재라 할 수 있음
 - 6개월 이상 사회와 단절하고 좁은 방에서 숨어 지내는 이들을 일본에서는 ‘히키코모리(Hikikomori)’라 명명하였고, 한국에서는 이시형 등(2000)에 의해 ‘은둔형 외톨이’라 명명되었음
- 일본 사회의 반면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
 -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층의 등교 거부 문제가 거론되었고,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차차 은둔형 외톨이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음
 -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 왔으나 이들을 방에서 꺼내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음
 - 1980년대 등교를 거부했던 청소년이 20대에 히키코모리가 되었고, 2010년 그들의 나이는 40대가 되었으며, 2020년에는 50대가 되어 일본 사회에 ‘8050 리스크’로 진화하였음
 - 8050 리스크란, 50대의 히키코모리 자녀가 80대 노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생활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의 생활이 망가지는 현상으로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
- 일본이 겪은 사회문제의 우리나라 재현에 따른 지자체 대응 필요
 - 한국의 사회 문제들 중 대부분은 일본에서 일어난 사회문제가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임
 - 한국 사회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으며, 조속히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한 지자체의 정책 및 지원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
은둔형 외톨이 현황

- 최근의 조사 결과 약 54만 명 이상
 -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, 고립·은둔청년이 약 54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(이재완, 2024)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·은둔 청년실태조사(2023년)에 의하면, 고립·은둔의 이유로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, 본인의 경제 수준을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
- 사회경제적 비용이 6.7조 원으로 추계
 -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, 고립·은둔 청년의 경제 활동 포기로 인한 손실이 연간 6.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(이재완, 2024)
 - 일본의 경우, 히키코모리(은둔형 외톨이) 1인이 25세 은둔을 시작했을 때 경제비용으로 약 16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음
 -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고립과 은둔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현재와 미래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며 청년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됨

서울시의 고립·은둔 청년지원 5대 혁신 사례

- 2019년 광주광역시가 첫 지원조례를 제정했고, 2024년 11월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
 -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립·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대되고 있는데, 고립·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, 실태조사, 위기 청년 조기 발굴 및 지원체계 확충과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임
 -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제정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- 서울시, 서울형 고립·은둔 청년 지원 '5대 혁신' 정책 발표(2024. 4. 29)
 - 서울의 고립·은둔 청년 추정 인구 약 12만 9,000명
 - 서울시 '고립·은둔 청년 실태조사'에 따르면, 2023년 1월 기준 만 19~39세 고립·은둔 청년 추정 인구는 약 12만 9천 명으로 서울 청년의 4.6%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음
 - 서울시가 '5대 혁신'을 통한 고립·은둔 청년 정책
 - 5대 혁신은 ▲'서울 청년기지개 센터' 개관 ▲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▲자기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도입 ▲가족 등 주변인까지 지원 확대 ▲모집·지원 체계 변경 등임
-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0년부터 '은둔 청년'의 사회 복귀를 돕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
 - 고립·은둔 청년을 3가지 유형(활동형 고립 청년, 비활동형 고립 청년, 은둔 청년)으로 분류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음

- **첫째, 고립·은둔 청년 전담 지원센터 및 ‘서울 청년기지개 센터’ 오픈**
 - 고립·은둔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‘서울 청년기지개 센터’를 종로구에 2024년 7월 새로 개방했음
- **둘째, 서울 전역 11개 복지관과 지역기반 지원체계를 구축**
 - 먼 거리 외출을 어려워하는 고립·은둔 청년 특성을 고려해 집 가까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
- **셋째, 자기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도입**
 - 언제 어디서든 고립·은둔 청년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기주도형 온라인 플랫폼도 도입
- **넷째, 일상 속 고립·은둔 청년 안전망 강화**
 - 고립·은둔 청년의 주변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으로 고립·은둔 청년의 부모 등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, 심리상담, 자조모임을 지원해 가족이 고립·은둔 청년의 일상 속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
- **다섯째, 연중 상시 모집·지원 체계로 변경**
 - 2024년부터는 고립·은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를 연중 상시 모집해 지원
 - 지금까지는 사업이 단년도 체계로 운영되며 연 1회(4월 중) 모집한 청년들에게 연말까지만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종료됐었음

지방자치단체의 추진방향

- 중앙과 지방의 의지와 예산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 중요
 - 고립·은둔 청년 관련 각종 지원사업이 분절화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의 부재 그리고 예산의 부족
- 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포괄적인 맞춤형 지원
 - 고립·은둔청년은 경제적 빈곤, 정서적 지지, 취업 지원, 보건의료, 가족 돌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
- 전문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
 - 고립·은둔청년이 고립·은둔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함
- 정부 조직에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 필요
 - 일본의 경우, 저출생과 사회적 고립의 두 가지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가정청과 고독 고립성을 신설했음

-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돌봄 및 지원, 그리고 촘촘하고 따뜻한 연결망을 지역맞춤형으로 확충해야 함
 - 고립·은둔의 이유가 경제적 빈곤과 인간관계의 빈곤임

참고문헌

- 이재완(2024.10.14). 증가하는 고립·은둔 청년, 대책이 시급합니다. 오마이뉴스 <https://v.daum.net/v/20241014103004662>
- 이시형·김은정·김미영·김진영·이규미·구자경.(2000).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.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.
- 정근하·노영희(2022). 지방의회 은둔형 외톨이 조례안 비교 연구 : 6개 시도를 중심으로. 한국자치행정학보, 36(2)).
- 더나은미래(2024). 서울시, 서울형 고립·은둔청년지원 '5대 혁신' 정책 발표. www.futurechosun.com

김 건 위 연구위원

cigma@krila.re.kr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